

DHI, 납기 · 품질준수 日서도 극찬

기사입력 2012.10.29 15:12:38

트위터 | 미투데이 | 블로그

◆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 / 품질경영대상 ◆

발전설비 기자재 업체 **DHHI**는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기술혁신 기업이다.

DHHI는 제품과 품질을 우선시 한 품질경영의 대표 주자로써 1999년 ISO 9001 취득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원자력 기기 제작 인증서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자격인증을 취득했고, 2009년에는 신일본제철에서 완벽한 납기와 품질 준수에 대한 표창을 수여받았다.



서호길 회장

DHHI는 GE, 도시바, 지멘스 등 세계 우수 기업들에 최고 기술과 최상의 품질로 신뢰를 얻고 있다. **DHHI**는 세계 최대 발전설비 에너지 공급사인 미국 **GE**에 발전설비 기자재 및 스팀터빈 기자재 등을 연간 80세트 이상 납품하고 있으며 연간 1500만달러 제품을 수출하고 품질과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을 통해 **GE**의 최고 파트너임을 인정받았다.

또한 2003년부터 신일본제철에 다양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MHI**와 거래를 시작해 첫해부터 수주 실적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등 1995년 시작한 원자력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운반설비, 담수설비, 발전설비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발전설비 중 보일러 부품인 가스에어히터와 터빈, 래깅, 어셈블리 등을 약 20년간 국내 전 발전소에 독점 납품 설치해 왔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 부문 설비를 울진, 영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